

#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85%이상 권영길 지지'

노동과세계 | 승인 2007.11.26 18:45

2007년 대선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지난 26일 하루 동안 민주노총 조합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 조합원 평균 85% 이상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거나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2006년 대선 당시 지지후보, 2004년 총선 당시 지지후보, 2007년 대선 투표 참여 여부, 현재 지지정당, 17대 대선 지지후보 등 5대 항목을 ARS를 통해 묻는 방식을 취했다.

**[사진1]**  
먼저 '2006년 대선 당시 지지후보'와 관련해 응답 조합원의 76.2%(393명)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17.2%(89명)이 당시 열린 우리당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는 2.3%(12명)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2.9%(15명)은 아무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그림1 참조

**[사진2]**  
'2004년 총선 당시 지지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7.2%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했다고 응답했다. 열린우리당은 5.2%,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1.7%, 1.2%에 불과해 민주노총 조합원들 상당 수가 진보정당에 대한 계급투표 의식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그림2 참조

**[사진3]**  
흥미를 끄는 대목은 '2007년 대선 투표 참여 여부' 부분. 최근 보수정당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BBK 게이트, 삼성비자금 의혹 등의 추문이 잇따르자 보수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가 일부 추락하거나 또는 부동층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

2007년 대선 투표 참여와 관련해 응답자의 93%가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1%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실제 대선 투표 당일에 접근 할 수록 민주노총 조합원들 투표 열기는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3 참조

**[사진4]**  
**[사진5]**  
그밖에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응답자의 85.7%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그림4, 5 참조

눈에 띄는 점은 대선 후보자들 중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문국현 후보자에 대한 투표 응답률은 평균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일부 신문방송 언론들이 응답률 20% 선을 갖고 지지율을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CNP에 의뢰해 실시한 민주노총 조합원 1800명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에는 총 516명이 응답했다. 신뢰구간은 95%, 허용오차는 4.3%다.

한편, 26일 현재 2007년 대선후보 12명이 최종 공식 등록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기호 3번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관위 초청 후보토론회와 관련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정동영,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문국현, 심대평 후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들은 원내의석 5석 이상이고 10월28일 이후 평균 5% 이상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자들이다. 총 3회 선관위 초청 토론회가 이어진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